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끝없는 나눔으로 정진

지태 스님

마산 정법사 주지



8년 전 정법사로 부임한 스님은 곧바로 불우이웃돕기를 시작했다. "먹고살기도 빠듯한데"라는 신도들의 반대를 잠재운 것은 스님의 솔선수범. 사찰 재정을 신도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찰의 주인이 된 신도들은 무료급식, 결식아동, 독거노인 돕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님은 마·창불교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사회화원이 곧 포교라는 소신으로 종파를 초월, 불교 힘 모으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총 150억 규모의 정법사 중앙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태 스님은 마산 최고의 포교, 수행, 복지 도량 건립을 추진 중이다.

무료급식으로 노인공경

원행 스님

마산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은 자기가 없다.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차가 없으면 오히려 편하다"는 게 이유이다. 차가 없지만 복지를 향한 스님의 행보는 고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봉화어린이집, 금강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교육 불사에 관심을 기울여온 스님은 이제 노인복지도 영역을 넓혔다. 복지를 지향하는 스님의 원력이 신도들을 움직여 무료급식소 대중공양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10년 준비 끝에 기숙사를 인수, 노인 이용 시설을 개원하게 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10월 경 금강경로센터(가칭)를 개원할 예정이다.

'서원곡 지킴이'로 불려

월봉 스님

마산 석봉암 주지
태고종 경남총무원장



월봉 스님은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마산 토박이다. 마산의 명소로 꼽히는 '서원곡유원지'에 위치한 석봉암 주지를 맡은 이후 '서원곡 지킴이'로 불린다. 자상하게 지혜를 일깨우는 월봉 스님의 원력 덕분에 석봉암엔 2~3배를 이어 다니는 신도가 많다. 특히 직접 도안, 설계한 남골 시설을 갖춘 관음영현전은 스님의 장례문화개선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스님은 앞으로 합포만이 흰개 나다보이는 석봉암에 해수관측상을 봉안하고 4대 관음기도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불모산 영산재' 기능 보유자

석봉 스님

마산 백운사 주지



통영과 고성지방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된 불모산 영산재의 맥을 잇고 있는 석봉 스님. 경상남도 대표 무형문화재 제 22호로 전국민속예술축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불모산 영산재 법배, 작법무 기능보유자인 스님은 법배의 내용 속에 선리와 교리가 모두 들어 있어 기도와 정진이 없으면 범음법배의 완성도 어렵다며 수행에도 철저하다. 현재 스님은 불모산 영산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영남법배의 전승과정, 악보, 출사 위 등을 담은 책자 발간을 추진 중이다.

경남 불교사회복지 선구자

진홍 스님

마산중리복지관 관장



불모지나 다름없던 불교사회복지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 부산 경남 일원에서 불교계 최초로 위탁받은 마산중리복지관 관장을 11년째 맡고 있다. 복지, 자원봉사, 후원 등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부족으로 늘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달려온 10년이었다. 마산중리복지관을 운영하며 '밥 주는 복지'가 아닌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누는 복지'를 배우게 된 스님은 지금도 마을의 해결사로 통한다. 때론 자식처럼, 때론 친구처럼 마을 어르신들의 고충을 일일이 챙기느라 스님의 하루는 짧기만 하다.

화합이 발전의 열쇠

세대·계층 구별없는 전천후·전방위 포교 '가동중'

경남 마산·창원·진해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화합과 단합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덕목이다. 마산과 창원 불교는 '몽치면 산다'는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산과 창원의 각 종단, 수행단체, 법인 등은 똘똘 뭉쳐서 불교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는 마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폐사지와 고찰에서 보듯, 이 지역이 융성할 불교 자산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마산과 창원 불교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지력은 바로 마산창원불교연합회라는 단합된 힘에서 기인한다.

더욱이 마산 창원 불교의 단합은 결코 오합지졸의 덩집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오히려 마산 창원 개개의 사찰들이 갖고 있는 포교 역량은 개별적인 힘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돋보이는 것이다.

#마산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불교는 기본 신앙의 성격의 짙다. 그러나 정법사, 정인사 등 정법사를 펴고 있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중부 경남권의 중심다운 불교세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보내며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정법사는 그 전통에 걸맞은 중창불사를 발원하고 불법홍포와 중생구제에 적합한 21세기형 도량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보전, 시민선방, 극락전, 수행단체 사무실 등을 갖춘 도량을 건립, 시민들의 수행, 휴식 공간으로 활짝 열려놓겠다는 포부다.

또한 '사회 환원이 곧 포교'라는 신념으로 무료급식,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 사업을 펼치는 한편, 영축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마산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산중리복지관의 활약도 돋보인다. 마산 지역의 복지시설은 천주교가 17곳, 기독교가 22곳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마산중리복지관 단 한곳뿐. 불교 복지 사업의 대표주자인 셈이다.

이 밖에도 해인사 백련암 포교원인 정인사는 매월 초 7일간의 참회기도, 매주 능엄주독속법회, 월아 3번째기도, 월아 참선 정진 등으로 수행의 향기가 높은 도량. 특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자 교실과 역사탐방은 침체된 청소년 불교에 활로를 열어놓고 있다.

#창원

마산이 오랜 연륜으로 안정적인 불교세를 과시한다면 창원불교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80년 창원시가 분리되기 전 하나의 도시였던 마산과 창원. 창원 불교는 창원사찰

연합회를 결성, 형식적인 마산불교를 뛰어넘기 위한 발전적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그 선의의 경쟁, 맨 앞에 창원 성주사가 있다.

성주사는 창원불교에 큰 그늘을 드리운 거목이다. 성주사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우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창원 지역 불교 모임의 법회개 열리는 창원불교의 산실. 또한 매년 가을, 산사문화축제를 일주일동안 열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불모학당,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신도 교육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39사단 내에 있는 군법당 안국사도 군 포교와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두루 하고 있다. 군 포교 전진 기지인 동시에 민간 불자들의 수행도량. 법배 법사는 창원불교연맹회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지역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원정 스님, 도성 스님, 원행 스님, 해초 스님 등 마산, 창원, 진해의 스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은 청소년 수련, 자원봉사, 문화캠프 등을 열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마·창 불교연합회는 매년 이웃사랑 자비나눔행사를 열고 4천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정화를 겪으며 갈등의 골이 깊었던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마·창 불교연합회가 결성되면서부터다. 이후 연합 불총 대법회, 시민 연등회, 시민 탑돌이 법회, 경남불교지도자 기원법회, 시민불교문화상,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드높여 왔다.

이 과정에서 창립 때부터 마·창 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아온 박수철 사무국장은 스님과 스님, 사찰과 사찰간의 윤희유리 화합의 단추를 끼워온 숨은 일꾼으로 스님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하다.

#진해

반면 진해 불교는 '흠어진' 개개의 사찰

로 위축된 불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정암사, 심원사, 대광사, 성흥사 등을 비롯한 몇몇 사찰들의 활발한 활동과 진해사암연합회의 무료급식소 운영이 문혀 버릴 만큼 진해불교는 구시점을 잃은 채 고전하고 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함께 참여하는 마산창원진해불교연합회 결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마·창 불교연합회의 주도하에 마산 창원 진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체를 만들고 각 지역의 고전 발전을 피하기 위한 것. 마산, 창원, 진해에 별도의 사암연합회를 두되, 각 사암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정하고 각 사업을 지역별로 배분, 진행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역할에 세 지역이 힘을 결집시키자는 것이다.

마·창 불교연합회 회장 원정 스님은 "마산과 창원불교의 단합된 힘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마산, 창원, 진해 불교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마·창·진 불교연합회가 창립으로 수행, 포교, 통일,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산·창원·진해=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사회참여·포교에 탁월

원정 스님

창원 성주사 주지
마·창 불교연합회 회장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마·창 지역 교도소 법사단 단장, 맑고 향기롭게 경남모임 대표, 마·창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일일이 셀 수 없는 원정 스님의 숭한 직함들은 마산 창원 지역에서 성주사와 원정 스님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종교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하나 둘 직함을 수락하게 된 것이 창원 불교에서 원정 스님과 성주사를 빼놓을 수 없게 된 이유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불교의 자기 정립이 확고해야 대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강조했다.

30년 자리지킨 '터줏대감'

도홍 스님

창원 불곡사 주지
창원시암련 총무



창원불교의 터줏대감. 고등학교 졸업 후 30년 동안 줄곧 불곡사에 머물며 불사,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 마산, 창원의 불교 사정에 밝고 스님간의 유대가 각별해 마·창 사암련 사무총장, 창원사암련 총무를 오랫동안 맡아왔다. 불곡사에서 이뤄진 불사 모두에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기도. 노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과 은사신 위봉 스님의 뜻을 받들어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약사여래 원력 실천

도근 스님

진해 심원사 주지
진해시암련 회장



도근 스님은 토끼와 각별한 사랑을 나누는 스님이다. 어느 날 새벽 차고에서 목숨을 구해준 토끼 '토솔이'와의 인연을 계기로 생명의 지중함을 깨닫게 된 스님은 "진정한 방생이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나 병든 동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평범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사암련 차원에서 봉축행사, 문화 행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스님의 생각. 동산 스님의 상좌인 스님은 당초 100여 평 뿐이던 심원사를 2천여 평 규모의 도량으로 일신했듯 진해불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고민이 깊다.

어린이포교 열정

상운 스님

진해 정암사 주지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



정암사 부설 영꽃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상운 스님은 어린이집을 직접 설계했을 정도로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스님은 맞바위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영아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땅 한 평 사기운동을 펼치며 부지 마련에 애를 썼다. 상운 스님은 산사 음악회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88년, 국악인 초청 경로잔치를 열어 세간의 관심을 끌며 지역민과 사찰의 어울림을 이끌어냈다.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으로 종단 일에도 적극적으로 있다.

군법당을 도심포교당으로

법해 스님

창원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 법사



법배 법사는 6개월 전 안국사로 부임하면서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 불자들의 수행 욕구까지 챙기고 있다. 98년 입관 군 포교에 매진했던 법배 법사는 군 법당이면서 동시에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안국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배 법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군 장병 포교, 훈련병의 수계법회를 중요시 하는 이유다. 수계를 받은 훈련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데 불연이 맺어주는 첫 단추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시민불교문화상

문화예술로 부처님 가르침 생활화 14년역사, 마산·창원 문화 견인

한해의 성과와 결실을 정리하는 연말, 마산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각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제정한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이 바로 그것.

시민불교문화상은 지역 불교계가 제정, 시상하는 상이지만 종교와는 무관하게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온 문화인, 예술인, 언론인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

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학, 예술, 지역개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 300만원씩의 상금이 장차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부문에 김현규 계명대 석좌 교수, 경남시조문학회 이사 이처기 시조시인, 예술분야에 조순자 한국여성가장기능보유자, 경남도자기예술협회 회장 진종만 도예가, 지역개발부문에 이순환 경남도민일보 사장, 이철호 경남신문 전 편집국장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

를 안는 등 수상자의 면면도 다양하다. 특히 전국연극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극단 '마산'이 문화단체 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시민불교문화상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개인은 물론 문화단체에도 힘을 보태주며 침체된 지역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은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마산창원불교연합회 창립과 더불어 제정된 시민불교문화상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으며 권위 있는 문화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